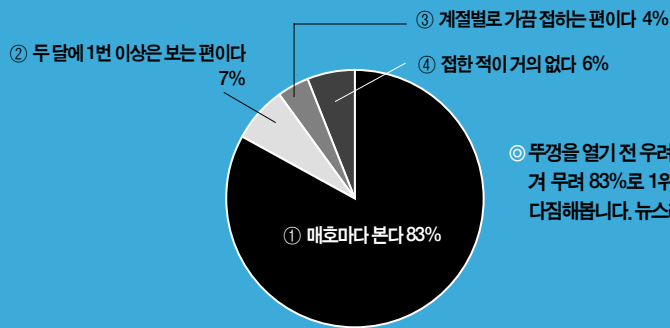


# 벤처인들, 매호 꼬박꼬박 접하고, 벤처계 동향을 꼼꼼히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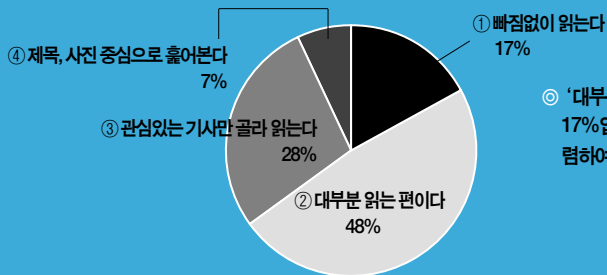
뉴스레터 (Venture Digest)에 대한 벤처인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엽서 한통 한통마다 따스한 시선과 함께 뜨끈한 의견을 보내주신 벤처인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밑거름으로 내년에는 더욱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 부탁드립니다. (총 응답자 171명, 남자 147명, 여자 24명)

## 1. 뉴스레터 (Venture Digest) 를 얼마나 접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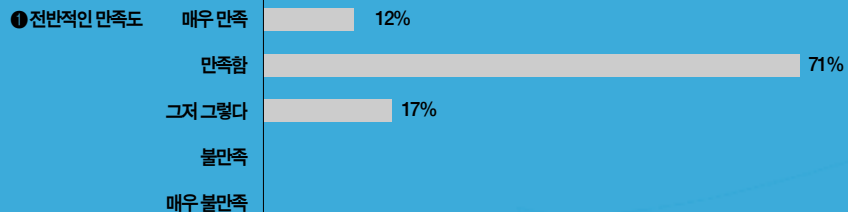
◎ 뚜껑을 열기 전 우려와 달리 (Venture Digest)를 매호마다 본다는 분이 과반수를 가뿐히 넘겨 무려 8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웃거름을 여미고, 알차게 열심히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뉴스레터를 접한 적이 거의 없다가 0%가 되는 날까지.

## 2. 기사는 어느 정도 읽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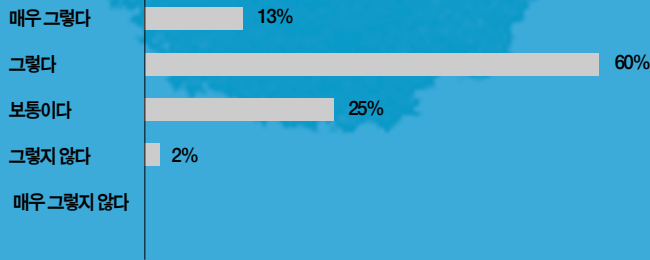


◎ '대부분 읽는 편'이라는 답이 48%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빠짐없이 읽는다'는 의견이 17%입니다. 뉴스레터에 높은 열독률을 보여주시는 벤처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벤처인들이 눈에 붙을 썬고 읽을만큼 알찬 내용의 뉴스레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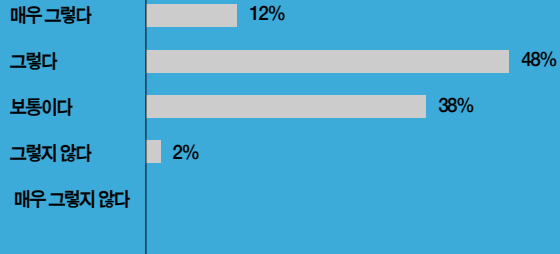
## 3. 뉴스레터 (Venture Digest) 에 대한 만족도는?



② 전체 내용이 유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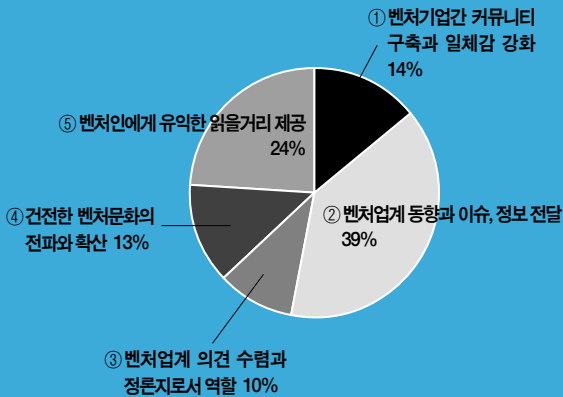


③ 매호 테마가 유익하고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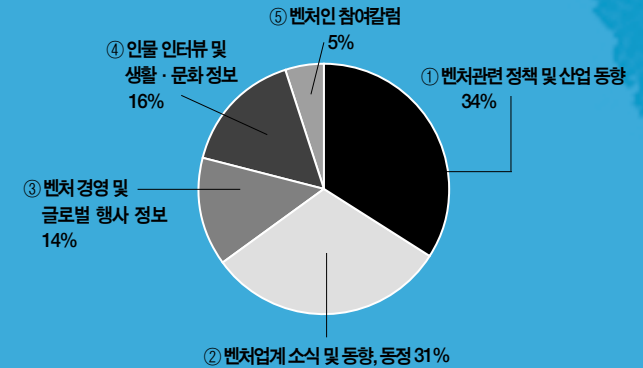
◎ '만족 과 '그렇다' 는 긍정적인 답이 1위를 모두 차지하여, 더욱 힘이 납니다. 하지만 분발을 바라는 '보통' 이란 답도 적지않게 나왔습니다. 특히 매 호 테마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란 평가가 38%에 이릅니다. 내년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테마로 진행하는데 힘쓰겠습니다.

4. 뉴스레터가 주력해야 할 편집방향은? (중복응답)



◎ 우리 벤처인이 협회지에서 가장 주력해야할 편집 방향으로 '벤처업계 동향 파악' 과 '이슈와 정보 전달' 을 꼽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익한 읽을거리 제공' 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5개의 문항이 큰 차이 없이 골고루 표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우리 벤처인들이 협회 뉴스레터에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5. 제일 관심있게 읽는 내용은? (중복응답)



◎ 벤처인들은 뉴스레터에서 보고 싶은 내용으로 벤처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과 업계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1위와 2위로 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빠르게 벤처관련 소식을 전하는 '파발마' 겸 '파랑새' 같은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뉴스레터가 개선해야 할 점은?

- 사보가 없는 벤처기업의 홍보창구역할 강화해야
- 벤처업계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기사의 부재
- 특정기업들에 대한 홍보성이 강하다
- BT부분의 기사가 적은 것 같다
- 경영내용이 좀 어렵다. 좀더 재미있고 쉬운 내용으로.

설문에 응해주신 벤처인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12월말까지 머그컵과 다이모 등 예쁜 기념품을 발송해 드립니다.

◎ 편집자에게 이런 점을 바란다.

- 벤처정신의 끊임없는 고민과 국가 전체 파급될 수 있는 지속적 강화 확산을 이슈화
- 사보가 없는 벤처기업에겐 사보역할과 홍보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뉴스레터였으면...
- 기업·제품 소개와 인터뷰 등은 동종 업종이 아니면 관심이 적다. 정부정책, 이슈, 대기업의 벤처관련 동향, 해외소식 등이 보강되길 바란다.
- 정부벤처담당 공무원의 지원방향계획에 대해 알고 싶다

- IT산업위주가 아니라 골목산업까지 벤처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편집방향으로 기획해달라
- 저희같은 벤처투자 기관들의 칼럼도 도입했으면
- 벤처기업 울리는 악성업체들의 유형과 대처방인을 특집으로 한번 다루어 달라
- 벤처업계 외 사회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달라
- 투자와 M&A관련 칼럼과 기사를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 대학교 벤처창업동아리도 매달 소개해 달라
-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융합기술에 관한 자세한 정보 오망